

박근혜 탄핵사태와 한국교회의 과제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질문과 모색)

이병주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1. 문제의 소재

가. 박근혜 탄핵사태의 특징

- 민주주의의 본질적 훼손과 민주주의의 극적 회생·발전 (역사적 성격)
- 보수/진보의 당파성을 넘는 민주주의적 요구의 연대적 분출 (정치적 성격)
- 민주주의의 모든 제도와 법적 절차가 작동한 “법률적” 정치변혁 (법적 성격)
 - ☞ 촛불집회(직접민주주의)/국회탄핵소추(입법부)/특검(행정부)/헌법(사법부)
- 사람들을 심판하는 지상의 심판권자들에 대한 탄핵의 심판 (영적/초월적 성격)
 - ☞ 한나의 기도(사무엘상 2장)과 마리아 기도(누가복음 1장)의 현세적 성취

나. 박근혜 사태의 거울에 비친 한국교회의 자화상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독교 – 탄핵반대 극우집회의 정치적/영적 동맹세력
(cf. 미국 트럼프 당선의 압도적 지지세력-미국 White Evangelicals의 81%)
- 민주주의에 “무관/무지한” 기독교 – 대부분의 강단은 세상일에 무관심 내지 회피
- 교회와 성도의 “분리/독립화” 현상 – 교인들은 그냥 “시민적 입장”에서 정치참여

다. 박근혜 탄핵사태가 던지는 질문

○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

- ☞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 민주주의의 “정의감”과 민주주의의 “욕망”
 - 민주주의의 정의감 (박근혜 사태) ↔ 민주주의의 욕망 (트럼프 사태)
- ☞ 보수와 진보와 민주주의? - 보수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민주주의는 다른가
- ☞ 개별 사람의 인생에 민주주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 사람의 사적 인생과 공적 인생의 연관성과 독립성
 -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냉정

○ **한국교회/기독교/기독교인들에 대한 질문**

- ☞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 ☞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고치고(회개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라. 토론 주제

○ **기독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과 대화 가능성**

○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입장들**

- ☞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정치적 입장”들이 있는가
 -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진보적인 입장/무관심한 입장의 비교
- ☞ 기독교인들의 각 정치적 입장들이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 성경적 근거와 / 현실적 취약점(의문점)의 분석

○ **기독교적 민주주의 이론의 필요성과 방법론**

- ☞ 인간의 개인적인 악과 집단적인 악에 대한 적극적 고찰 (인간의 본성)
- ☞ 인생과 사회의 현실에서부터 귀납적·경험적으로 출발 (민주주의의 구체성)
- ☞ 성경적 기본원리의 총체적 적용-성경의 세 가지 인생강령 (성경적 총체성)

○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론적/실천적 숙제**

- ☞ 문제의 심각성과 병적 증세에 대한 진단 / 자각증상의 유무
- ☞ 이론적/신학적 과제 - 이론적/학문간 토론과 신학적 재검토
- ☞ 실천적/현실적 과제 -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적/사회적 회개
 - 제도교회들의 할 일과 세상 속 성도(평신도)들의 할 일

2. 기독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과 대화

가. 세 가지 시각(視覺)

- 민주주의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
-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의심”
- 기독교와 민주주의 간의 “대화”

나. 민주주의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 - 기독교에는 큰 문제가 있다.

- 독재권력을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하는 기독교
 - ☞ 유신/5공 조찬기도회, 교계의 권력편향성, 탄핵반대집회, 인종주의 트럼프 지지
- 정치적·사회적 불의에 수동적으로 침묵·방조·협력하는 기독교
 - ☞ 독일 히틀러와 유대인 학살, 미국교회와 흑인노예제, 일제 식민지와 신사참배
- 기독교(일부)의 정치적 브랜드화- 정치적 극우주의에 대한 종교적/영적 동맹세력
 - ☞ 권력과의 동맹으로 인한 반민주주의+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반민주주의
 - ☞ “자기사랑”의 극우주의와 “자기사랑”의 기독교 간의 공통성 = “자기사랑”

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의심” -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 인간의 선함과 정의(의로움)에 대한 기독교적 의심
 - ☞ 성선설적 민주주의 (인간의 이성) vs. 성악설적 기독교 (인간의 죄성)
-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기독교적 의심 - 사회적 이상주의에 대한 의심
 - ☞ 민주주의 > 인간의 정의감 (선) + 인간의 욕망 (악) ☞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 보수에 대한 의심, 진보에 대한 의심, 시민의 정의감에 대한 의심
- 민주주의는 인간의 “구원”이 아니다 - 구원론적 갈등/경쟁
 - ☞ 영적/초월적 구원 (기독교) vs. 사회적/현실적 구원 (민주주의)

라.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변증법적 “대화” -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상호보완 가능성

- “인간의 한계”: 기독교의 핵심(인간의 악) ≡ 민주주의의 현실론(권력에 대한 불신)
- “인간의 가능성”: 민주주의의 핵심(인간의 이성) ≡ 기독교의 인간론(하나님 형상)
- “인간의 악” > 개인적/영적 악 (기독교) + 집단적/사회적 악 (민주주의)
- 기독교 ☞ 민주주의: “인간의 한계” / 민주주의 ☞ 기독교: “인간의 집단적 악”

3.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정치적 입장 - “권세” / “경건” / “정의”

가. 세 가지 장면

-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 한기총의 개헌지지성명, 탄핵반대집회 적극 참여
-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기독교 - 이럴 때일수록 영성과 기도에 집중하자
-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 - 박근혜 퇴진운동에 적극 참여

나. 기독교인들 내부의 미움과 참음

-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같은 기독교인끼리도 엄청나게 미워하고 불편하게 됨
 - ☞ 세상의 보수/진보 간 적대감과 교인들의 보수/진보 간 미움-거의 차이 없음
- (정치적) 원수를 사랑까지는 못해도, 참고 견디면서 서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
 - ☞ 각 입장의 ‘객관적 근거’와 ‘존재의 이유’를 함께 이해하고
 - 보수와 진보는 모두 세상 끝 날까지 존재할 것이므로 (둘 다 없어지지 않는다)
 - ☞ 각 입장의 ‘객관적 결함’과 ‘주관적 한계’를 함께 규명, 경계하고 각자 회개
 - 보수와 진보는 둘 다 완벽하거나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므로

다. 일차적인 관찰의 내용

-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는 인간의 자기사랑과 욕망에 견고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간의 이웃사랑과 정의감에 둔감한 단점이 있고,
-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는 인간의 이웃사랑과 정의감에 치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간의 자기사랑과 욕망에 대한 인식의 취약성이 있으며,
- 신앙적으로 경건한 비정치적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의 초점을 견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지한 이웃 사랑의 추구에 대해서는 불철저하거나 무관심한 단점이 있다.

라. 검토의 방법

-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정치적 입장의 각 “강점과 약점”을 다 함께 살펴볼 것
- 현대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근거해서 살펴볼 것-기존에 마련된 정답은 없다
 - ☞ 신·구약 시대/중세교황시대/종교개혁시대, 오거스틴/루터/칼빈의 시대 - 오늘과 같은 맥락의 민주주의가 없었음 ☞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질문”으로 취급해야

4. 세 가지 정치적 입장의 분석 - 민주주의와의 연결점 및 단절점(의문점)

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민주주의

- 성경적 근거 ☞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로마서 13:1-2)
 - ☞ 임금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1-2)
- 관련이론: 두 개의 칼 이론(Two Swords Theory)¹⁾ - 겔라시우스/그레고리7세
 - ☞ 교회는 신성한 영적 칼, 황제도 신성한 세속적 칼 ☞ 기독교왕국(Christendom)의 하나님/예수님 대리인(황제/교황)에게 복종하라
- 연결점: 생명·재산의 보호, 법·질서의 유지 = “민주주의의 안정 욕구” (보수성향)
- 단절점(의문점): “왕정과 민주주의의 차이?”
 - ☞ 민주주의의 권세는 국민, not 통치자/ 민주주의의 임금은 국민, not 왕
 - ☞ 민주주의 사회에서 위임된 권력이 가지는 객관적 “한계”에 대한 인식 결여
 - ☞ 민주주의 사회에서 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시대적/방향적 착오”

나. 비정치적 경건주의 기독교와 민주주의

- 성경적 근거 ☞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36)
 - ☞ 너희는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2)
- 관련이론: 두 개의 왕국 이론 (Two Kingdom Theory)²⁾- 독일 종교개혁 (루터)
 - ☞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Heavenly Kingdom)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것
 - ☞ 국가는 임시적인 땅의 나라(Temporal Kingdom)를 관리하는 상대적인 것
- 연결점 - 인간제도의 절대불신,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 개인의 소극적 자유권
- 단절점(의문점):
 - ① “공적 이웃사랑은 어디에?”
 - ☞ 민주주의 사회의 이웃사랑: 사적 이웃사랑 ≪ 공적 이웃사랑 (복지제도 등)
 - ☞ 민주주의를 통한 이웃사랑의 무시 =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 ② 경건주의가 정치적 공격성을 나타낼 때 - 기독교적 의제의 직접적인 정치화
 - ☞ 신앙적 의제(종교활동의 자유/낙태/동성애)만으로 정치적 입장 결정
 - ☞ 기독교계의 주장에 영합한다는 이유로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의 백인복음주의
 - ☞ 기독교의 기관이익 추구-개인주의적 복음주의 기독교의 사회적/도덕적 파산³⁾

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와 민주주의

- 성경적 근거 ☞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아모스 5:24)"
 - ☞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에 기쁨의 희년을 선포 (누가복음 4:16-19)
- 관련이론: 혁명적 천년왕국주의(Utopian Millennialism)-요아킴(12C), 뮌저(16C)
 - ☞ 세속적 천년왕국주의 (Secular Millennialism) - 사회혁명적 이상주의
 - ☞ 20세기 진보적 상황신학 - 해방신학 / 흑인신학 / 민중신학
 - ☞ 복음주의의 사회적 책임론 - 톰 라이트의 새 관점학파- 언약관계 강조
김세윤 박사 - 하나님나라 복음(칭의적 복음과 관계적 복음의 종합)⁴⁾
- 연결점 -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자유/평등/박애)와 밀접, 사회적 불의에 분노

- 단절점(의문점)
 - ① 민주주의의 상대성: 정의감과 욕망의 공존 문제
 - ☞ 민주주의는 인간의 정의감과 인간의 욕망이 함께 공존/경쟁하는 시스템
 - ☞ 절대적 정의/절대적 불의의 시대 vs. 상대적 정의/상대적 불의의 시대
(20세기 진보적 상황신학이 21세기에 부딪힌 상황적 숙제)
 - ② 인간의 이중성: 이웃사랑보다 더 강한 자기사랑의 문제
 - ☞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 ☞ 자기사랑(욕망)의 무게를 경시한 기독교적 정의론의 현실적 한계
 - ☞ 기독교적 정의감 - 이웃사랑의 주관적 추구하고 자기사랑의 객관적 추구가 결합된 내용으로 전개될 필요
 - ③ 모든 인간의 악과 불의: "불의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의 모순
 - ☞ 불의한 인간들이 묵인/방관/조장하는 사회적 불의 - 불의한 기독교
 - ☞ 의로운 인간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 - 기독교의 절망적 인간관과 상치
 - ☞ 불의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 "Searching for the Justice by the Unjust people" - 기독교적 정의관의 모순과 긴장

5. 모색 -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이론적 재구성

가. 세 가지 입장들의 공통적 한계 - 민주주의의 구체성과 성경적 총체성 부족

- 기독교의 정치에 대한 입장이지,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아님(정치>민주주의)
-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성 부족
 - ☞ '권세'를 존중한다고 민주주의 시대에 통치자의 왕권을 옹호하거나,
 - ☞ '경건'을 강조하면서 삶의 조건에 관한 민주주의와 왕정 간의 차이를 무시
 - ☞ '정의'를 추구하면서 왕정과 독재권력의 절대적 불의와 선거로 선출되는 민주주의 권력의 상대적 불의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
- 성경적 "총체성" 결여
 - ☞ 보수적 입장의 '권세'는 도전적인 기독교 신앙의 근본핵심이라 하기 어렵고,
 - ☞ 비정치적 입장의 '경건'은 하나님 사랑은 하지만 이웃사랑을 놓치고 있으며,
 - ☞ 진보적 입장의 '정의'는 이웃사랑을 통한 인간의 희망을 추구하지만 자기사랑에 붙잡힌 인간의 절망적인 측면을 경시한다는 반반(半半)의 한계가 있음

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새로운 모색

- 인간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악(자기사랑과 욕망과 폭력)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
- 인간의 집단적 자기사랑과 민주주의의 필요성 - 인간의 악(죄성)과 민주주의
 - ☞ 이생의 천국은 만들지 못하지만, 이생의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 구원)
- 성경의 총체적 핵심강령 - 성경의 세 가지 인생 강령
 - ☞ 이웃사랑의 대계명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 ☞ 십계명의 인생계명 (5~10계명)
 - ☞ 주기도문의 인생기도 (4-6청원)
- 민주주의에 대한 여덟 가지 성경적 명제
 - ☞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의 변증법) / (인간의 세 가지 자기사랑)
 - ☞ (자기사랑의 자유와 평등 - 이웃사랑과 민주주의)
 - ☞ (인간의 자기사랑과 집단적 폭력 - 제6계명과 정치적 민주주의)
 - ☞ (자기사랑의 왜곡과 공적 거짓 심판- 제9계명과 법률적 민주주의)
 - ☞ (자기사랑과 일용할 양식 - 제8계명과 경제적 민주주의)
 - ☞ (자기사랑과 권력의 본성 - 주기도문과 민주주의의 악)
 - ☞ (자기사랑과 공적 시험 - 주기도문과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

6.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자기부인)의 관계 -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

가. 인간의 악 ⇨ 인간의 자기사랑

- 인간의 악은 인간의 자기사랑에서 출발, 욕망과 경쟁/갈등과 폭력으로 전개됨
 - 인간의 자기사랑 = 개인적 자기사랑 + 집단적 자기사랑 (+ 초월적 자기사랑)
 - 집단적 자기사랑 = 민족적/국가적 자기사랑 (공동체의 전부)
+ 계층적/집단적 자기사랑 (공동체의 일부)

 - ① 초월적 자기사랑(악/죄) = 이상숭배 - 하나님 사랑(이중대계명)/신앙으로 다름
 - ② 개인적 자기사랑(악/죄) = 욕심, 윤리적 이탈, 개인적 범죄 - 도덕/법으로 다름
 - ③ 집단적 자기사랑(악/죄) = 국가간 충돌, 계층간 적대 - 정치/민주주의로 다름
- ⇨ 일반적으로 교회는 사람의 악 중 초월적 악(①)을 주로 강조하고, 개인적 악(②)은 대충 다루며, 집단적 악(③)에는 거의 관심이 없음

나.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

- 자기사랑 > 이웃사랑: 이웃사랑 = 타인의 자기사랑에 대한 존중 (상대적 개념)
- 자기사랑의 자유와 평등 - 특권적 자기사랑을 배척하는 / 민주주의의 이웃사랑
- '공적(公的) 이웃사랑'과 민주주의 - 세금과 복지제도를 통한 '공적 자기부인'

다. 인간의 세 가지 자기사랑 - '집단적 자기사랑'과 민주주의의 기본구조

- 개인적 자기사랑 - 인생의 기본적 책임 - 민주주의의 생활적 기초
- 집단적 자기사랑 - 인생의 기본적 상황 - 민주주의와 인간의 조건
- 국가적 자기사랑 속의 계층적 자기사랑 - 시민적 민주주의의 발생
 - 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자기사랑 - 왕정 / 국가주의 / 국가 간 대립
 - ② 당파적이고 계층적인 자기사랑의 발현 - 시민적 민주주의의 발생 / 작동원리

라. 관련 이론

- 죄악론(Harmartiology): 창세기 3-4장, 로마서 3장(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 악으로부터의 구원(주기도문): 영적 전쟁에 관한 World Systems Model (Walter Wink - "사탄/악은 인간성의 집합적인 어두움이다"-정사와 권세의 악)⁵⁾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라인홀드 니버): 개인의 도덕성을 넘는 집단의 폭력성/악성을 강조 (But, 개인도 그렇게 도덕적이지는 않다)
- 성악설 (순자)

7. 십계명의 인생계명들과 민주주의 - 인간/세상의 현실과 민주주의의 필요성

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Second Table) -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세상에 관한 계명

- 십계명의 후반부 계명(5~10계명) - 십계명의 절반, 이중계명 중 이웃사랑에 해당
- 십계명의 인생계명은 인간 삶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
 - ☞ 정치(6계명), 경제(8계명), 재판(9계명), 분쟁(10계명), 부모(5계명), 부부(7계명)
 - ☞ State (6계명, 9계명), Family (5계명, 7계명), Labor (8계명, 10계명)

나. 두 번째 돌판의 해석 방법

- 이중계명(이웃사랑)과 주기도문(인생기도)과의 관련 하에서 유기적으로 해석
 - ☞ 그러지 않으면 당연하고 일반적인 도덕/법규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십계명의 인생계명을 이중계명의 원리에 기해서 해석
 - ☞ 이웃사랑(규범)과 자기사랑(현실) 사이의 필연적 긴장
 - ☞ 하나님사랑(원칙)을 넘는 "이념 이상화"의 경계-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 십계명의 인생계명을 주기도문의 인생기도와 연결지어 삶에 적용
 - ☞ 우리(나와 너)의 일용할 양식을 각자/함께 구하고 (제4청원)
 - ☞ 서로의 의무와 책임과 실패를 존중하며 (제5청원)
 - ☞ 타인·세상이 가하는 사적·공적 악과 사적·공적 시험을 감당하고, 타인·세상에 사적·공적 악을 저지르거나 사적·공적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 (제6청원)

다. 민주주의에 관한 인생계명의 논의

- 인간의 자기사랑과 폭력성 - 제6계명(살인)과 정치적 민주주의
- 인간의 자기사랑과 거짓 심판 - 제9계명(거짓증거)와 법률적 민주주의
- 인간의 자기사랑과 일용할 양식 - 제8계명(흫치지 말라)와 경제적 민주주의
- 인간의 "보수적" 성향(욕망과 자유)과 "진보적" 지향(정의감과 평등)을 함께 파악
- "개인적" 자기사랑/이웃사랑과 "집단적" 자기사랑/이웃사랑을 함께 파악

라. 관련 이론

- 두 가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 교회의 원리(칭의) vs. 국가의 원리(정의) - 칼 바르트 ("Church and State")⁶⁾
- 두 번째 돌판 위의 세 기관 (Three Divine Institute): State/Family/Labor
 - 디트리히 본회퍼 ("State and Church")⁷⁾
- 두 번째 돌판의 신학(구상)- 기독교신앙과 인생/세상의 현실에 관한 본격적 논의⁸⁾

8. 인간의 집단적 자기사랑과 폭력성 - 제6계명과 정치적 민주주의

가.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 욕하지 말라 (산상수훈) =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너무 쉬운 계명과 너무 어려운 계명)

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 - 인간의 자기사랑

다. 인간의 세 가지 자기사랑 ⇨ 세상의 세 가지 폭력과 악

- ① 개인적 자기사랑의 폭력과 악 - 생존(生存)을 위한 개인적 경쟁과 싸움
- ② 당파적/계층적 자기사랑의 폭력과 악- 상대 집단에 대한 제거(除去)의 욕망
 - ⇨ 내전 (물리적 살인)/ 정치적 탄압 (정치적 살인)/ 사상적 공격 (정신적 살인)
 - ⇨ 공산주의: 보수를 전부 없애려는 폭력의 악
 - ⇨ 매킨시즘(극우주의): 진보를 모두 없애려는 폭력의 악
- ③ 국가적/민족적 자기사랑의 폭력과 악 - 국가 간의 충돌과 전쟁(戰爭)

라. 민주주의 - 집단적 자기사랑의 폭력성에 대한 제6계명의 처방(處方)

- ① 민주주의의 '선거' - 집단적 자기사랑 간의 '평화적인 전쟁'
 - ⇨ From Bullet (총알) to Ballot (투표지) - 선거 과정의 전투성/격렬성은 당연
 - ⇨ 원수를 덜 미워하고 함께 사는 방법의 발명-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
- ② 민주주의의 내부적 긴장(緊張) - 자기사랑의 수직성과 이웃사랑의 수평성
 - ⇨ 하나님사랑의 원리, 신앙과 교회의 원리는 십자가의 수직이지만
 - ⇨ 이웃사랑의 원리, 세상과 사회의 원리는 십자가의 수평이다.
 - ⇨ 사회의 갈등은 수직적 상승을 향하는 자기사랑의 욕구와 수평적 확산을 요구하는 이웃사랑(자기부인)의 요구 간의 지속적인 긴장

마. 관련 이론

- 정치적 선악과의 배경(창세기 3장), 산상수훈(마태복음 6장-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 보수적 선악과와 진보적 선악과를 모두 경계
- 공화주의 (정치학 이론) -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순기능 강조 (마키아벨리)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인홀드 니버):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폭력성
- "열린사회와 그 적들" (칼 포퍼): 전체주의적 정치철학의 절대선(絕對善) 비판
- 디트리히 본회퍼의 옥중 사색: "기독교의 세상적 성격 (Worldliness of Christianity)"⁹⁾ ⇨ 세상의 현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세상에 직면하는 기독교

9. 인간의 자기사랑의 왜곡과 공적 거짓 - 제9계명과 민주주의의 공적 심판(審判)

가. 사적 거짓말의 세계

- ☞ 윤리/일상/양심의 영역

나. 거짓 증언과 거짓 심판 (사적 거짓말 ☞ 공적 거짓말)

- ☞ 거짓말의 중량감과 악이 대폭 증가, 타인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활용되므로

다. 공적 거짓말의 세계 - '지상(地上)의 심판권자들이 행하는 거짓 심판(審判)

- ☞ 타인을 죽이고 살리는 거짓 / 권력의 거짓 판단이 가지는 파괴적 힘

라. 공직자의 자기사랑으로 인한 왜곡- 공적 거짓 심판과 공적 기능의 실패

- 공직자의 "개인적 자기사랑"의 과잉 - 공적 거짓판단의 무책임성
 - ☞ 공적 이익보다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우선
 - ☞ 공적 간신의 양산 - 생존형 간신, 책임 없는 간신, 무능한 간신, 착한 간신, 아첨하는 간신, 당파적 간신 (세월호 사태~최순실 사태)
- 공직자의 당파적 자기사랑의 과잉 - 공적 거짓판단의 파괴성
 - ☞ 국민 절반의 비국민화 (당파적 공익과 비당파적 공익의 혼동/무지)
 - ☞ 공동체의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공동체를 파괴 - 국가주의 사상통제 추구

5. 민주주의 - '공적 거짓 심판(審判)'에 대한 제9계명의 처방(處方)

- 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개인적 자기사랑/당파적인 자기사랑의 제도적 부인(否認)
- ② 제9계명 - 권력자의 거짓에 대한 기독교적 경고
 - 지상의 심판권자에 대한 하늘의 심판
 - 지상의 심판권자에 대한 지상의 법적 심판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
- ③ 정치적 선악과(善惡果)에 대한 경고 - 정치적/법률적 거짓 심판권자의 죄악

6. 관련 이론

- 죄악론(Harmatology): 선악과의 죄성(창세기 3장)
 - ☞ 권력을 가진 자의 권력적 선악판단 권한이 가장 치명적인 죄에 노출됨
 - ☞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하다
- 입헌주의 헌법이론 - 삼권분립, 권력통제 - 민주주의 정치철학 (몽테스키외 등)
 - ☞ 인간의 선의를 믿지 않고, 인간의 권력도 믿지 않음 (⇔ 공산주의의 실패원인)

10. 자기사랑의 생존(生存)과 일용할 양식 - 제8계명과 경제적 민주주의

가.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

나. 성경의 두 가지 경제 강령 -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 / 흠치지 말라 (제8계명)

- 우리의 양식 = 나의 양식 + 타인의 양식
- 흠치지 말라 - 타인의 먹고 살 권리를

다. 사적인 인생과 일용할 양식 - 땅과 직장과 시장을 통해 먹고 사는 일

- ① 토지(土地)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 (농업 - 지주/자작농/소작농)
- ② 학교(學校)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인생 (교육)
- ③ 직장(職場)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 (기업주/관리자/생산직/사무직)
- ④ 시장(市場)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 (상업/서비스업-판매/소비, 물건/노동)
- ⑤ 사적 인생과 공적 인생 = '해석론(解釋論)적 인생'과 '입법론(立法論)적 인생'

라. 민주주의와 일용할 양식 - '광장(廣場)'을 통해 먹고 사는 일 (입법론적 인생)

- ① 민주주의와 농민들의 일용할 양식 (토지소유권, 경작권)
- ② 민주주의와 기업가들의 일용할 양식 (기업의 자유, 경영권)
- ③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일용할 양식 (집단적 노동삼권)
- ④ 민주주의와 '팔아야 사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
 - ☞ 상품/서비스를 팔 권리, 일할 능력을 팔 권리, 판매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 ☞ 21세기 보수와 진보의 고민과 혼란 - 노동계급의 해체
 - ☞ 개인적으로 팔지(sell) 못하는 사람의 비극과 vs. 집단적으로 살(buy) 수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의 가능성
- ⑤ 민주주의가 밥을 '금방' 먹여주지는 않는다는 사실 - 민주주의의 한계

마. 관련 이론

-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The End of Work), (서울: 민음사, 2009)
 - ☞ 정보산업사회의 생산력 증가와 노동 수요의 감소-소멸 양상 예언,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민간부문/공공부문 노동 외의 사회적 공유노동의 일자리 제안 (기본소득 논의와의 연관됨)
- 칼 맑스, Communist Manifesto
 - ☞ 경제제도의 변화과정 설명. 생산력 고도발전과 공산주의 경제제도 실패의 역설

11. 주기도문의 인생기도와 민주주의의 적용/생활적 실천 (민주주의의 기도)

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4청원) - 경제생활과 민주주의

- 나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개인적 인생의 자기책임)
- 너(타인)의 양식에 대한 존중 (사회적 인생의 상호의무)
 - ☞ 국가/사회의 영역에서: 경제정책/ 세금제도/ 복지제도에 관한 정치적 참여
 - ☞ 직장/생활의 영역: 노동의 존중, 경영의 존중, 정당하고 합리적인 분배
- 나의 양식(자기사랑) + 타인의 양식(이웃사랑) + 우리(공동)의 양식(자기사랑+자기부인)
⇒ 세 가지 양식에 대한 전체적 인식과 실천의 필요성 ⇒ 한 가지만 보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이 바빠서 한 가지만 보게 된다.

- 기독교인들에게는 ⇒ 자기의 경제적 보수주의 또는 경제적 진보주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적/신앙적으로 반성(reflection)하고 회개(repentance)할 책임 ⇒ Or,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으로 전락 ⇒ 개인주의적 자기사랑의 기독교의 위험 ⇒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 신앙 (= 그냥 이기주의)

나. 서로의 빛을 사면하고 사면받는 삶 (제5청원) - 민주주의와 인간의 상호관계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채권)와 의무(채무)가 없이는 세상이 굴러갈 수 없음
- 권리와 의무의 문제 -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내가 채권자인가 채무자인가?
-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크게 생각하고(자기사랑↑), 남의 권리를 작게 생각하는 (이웃사랑↓) 본성이 있음 - 내 의무는 잊어먹고 타인의 의무는 확대

- 정치적 권리와 의무, 경제적 권리와 의무의 정확한 인식이 선결적 필요 ⇒ 나의 권리(자기사랑)과 타인의 권리(이웃사랑)과 우리의 권리(자기사랑+자기부인) ⇒ 세 가지 권리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과 실천의 필요성 ☞ 나의 정의는 너의 정의가 아니고 우리의 정의도 아닐 가능성 (본전이론)
- 먼저 권리와 의무의 소재와 내용을 분명히 해야 ☞ 그 후에 서로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 정치적 제도(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경제적 단위에서, 종교기관(교회) 에서조차도 ☞ 그러지 않으면 공적/사적 악을 방치/조장하고 공적/사적 시험에 들게 됨

다. 공적/사적 시험, 공적/사적 악으로부터의 구원 (제6청원) - 민주주의와 인간의 악

① 자기사랑과 힘(권력)의 본성 - 주기도문과 인간의 사적/공적 악

- 모든 인간은 불의하므로, 모든 종류의 권력은 개인의 악을 억누르고 제한함과 동시에 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악을 만들어냄
- 사적 권력은 사적 악을 만들어내고, 공적 권력은 공적 악을 만들어냄 ⇨ 권력이 있는 사람의 고의는 알면서 악행/ 권력이 있는 사람의 실수와 무지는 모르면서 더 큰 악행을 저지름 ⇨ 힘이 작은 사람은 작은 권력만큼 악을 행하고 / 힘이 많은 사람은 많은 권력만큼 악을 행함 ⇨ 악한 사람의 권력은 위악적(僞惡的)으로 악을 행하고 / 착한 사람의 권력은 위선적으로 악을 행함 ⇨ 사적 권력은 몇몇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해치지만, 공적 권력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해침
- 세상의 권력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악을 만들어 내므로, 사람들은 선하고 악한 모든 종류의 권력과 싸우고 권력이 만들어내는 악을 제한해야 함
- 세상에서 공적/사적으로 출세하고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가능성을 주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그 권력을 가지고 알거나 모르면서 더 크게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위험에 빠지는 것임을 두려워해야

② 자기사랑과 사적/공적 시험 - 인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씨름과 싸움 (시험과 싸움)

- 사람이 드는 시험 ⊃ 개인적인 사적(私的) 시험 + 집단적인 공적(公的) 시험
-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압도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험에 맞서 싸우고 극복을 하는 행동과 실천도 있어야 함
- 사적인 시험에는 사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씨름하며, 공적인 시험에는 공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씨름해야
- 그러나 세상에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때도 있고, 싸워도 못 이기는 때가 있으며, 지는 줄 알고도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한번 싸움으로 해결되는 시험도 있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졌다 이겼다 해야 비로소 끝이 나는 싸움도 있음
-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사적)으로나 집단적(공적)으로나 시험에 맞서 싸울 때와 싸울 수 없는 때, 싸움의 현실적 가능성과 싸움의 한계, 싸움을 시작할 때와 싸움을 멈출 때를 알아야 (싸움의 기술-전도서3:1-8)

12.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론적/실천적 숙제

가. 문제의 심각성과 병적 증세에 대한 진단 / 자각증상의 유무

○ 병증의 심각성

① 교회가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 탄핵반대 집회에 적극 나선 한국 유일의 종교 - 개신교

☞ 트럼프 당선의 결정적 역할을 한 미국 백인복음주의-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림

= 한국교회의 주류세력 또는 적어도 그 일부는 세상의 암적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② 교회 내부에 암적 요소가 있지 않은가?

☞ 공적 가치/민주주의적 가치에 무지한 기독교 신앙과 신학

☞ 공적 악과 인간의 집단적 악에 대해서 마비증상을 보이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

☞ 개인주의적 자기사랑의 복음주의 신학이 보여주는 사회적/도덕적 파산 현상

= 한국교회의 강단과 평신도들의 신학과 신앙에는 "악과 불의에 대한 마비와 동조"라는 암적 요소가 있다.

=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 특히 개신교가 사회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이 최근의 역사적 맥락의 결과

○ 자각증상의 유무

☞ 탄핵사태의 외증 - 기독교인들 전반적으로 당혹감/자괴감이 많이 들었음

☞ 탄핵사태가 지난 후(7월) - 잊혀진 것은 아닌가/ 강단이나 성도들이나 모두 다시 신앙적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 자각증상과 회개와 고침이 없으면, 앞으로 비슷한 공적 상황이 생길 경우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임.

나. 이론적/신학적 과제 - 이론적/학문적 토론과 신학적 재검토

○ 이론적/학문간 토론의 필요성

☞ 한국교회의 강단과 신학계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 ☞ 신학은 본질적으로 세상 학문에서 퇴각한지 오래됨
- ☞ 민주주의에 대한 세상 학문의 풍부하고 치열한 고민과 공통으로 토론하고 논의를 전개할 필요 - 민주주의의 구체성 (세상학문-정치학,경제학,법학 등) + 성경적 총체성 (신학)

○ 신학적 재검토의 필요성

- ☞ 인간의 "집단적" 죄와 악에 관한 문제 - 그동안 신학이 개인적 죄와 개인적 악에만 집중하고 집단적 죄와 집단적 악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제기 -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 개신교회의 기본 골자인데, 그 '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의 신학이 너무 추상적이고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 ☞ "교회와 국가(사회)" 항목을 조직신학에 추가할 필요 - 조직신학의 체계 속에서 신자들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내용들은 다루어지지만, 신자들의 집단적이고 공적이고 현실적인 생활의 내용들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학교의 전문적인 신학 교육에서도 교회의 일상적인 신앙 교육에서도 '신앙의 공적 원리와 신앙의 현세적 적용'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사태에 임해서 대부분의 목회자/신학자/평신도들이 '기독교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잘 알기 어려웠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다. 실천적/현실적 과제 -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적/사회적 회개

- ☞ "세상을 어지럽히는 기독교"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 ☞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공격하는 "개인주의적 자기사랑의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
- ☞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과 인생 속에서 치열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
- ☞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기사랑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주된 흐름으로 나타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회개
- ☞ 제도교회들의 할 일과 세상 속 성도(평신도)들의 할 일의 분별하고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 -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정치적 사회적 과정에 참여, 주도하는 평신도들의 신앙적 각성과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주도적 참여가 필요

(끝)

[미주]

- 1)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Vol. 1.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2)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II: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3) Washington Post, 2016. 10 19. "The Trump effect? A stunning number of evangelicals will now accept politicians' 'immoral' acts". 2011년에는 백인 복음주의자(White Evangelicals)의 30%가 '공직선거 출마자의 비도덕성에 개의치 않는다'고 하여 일반 미국인의 44%가 공직자의 비도덕성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백인 복음주의자의 72%가 '공직선거 출마자의 비도덕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일반 미국인 전체(61%)보다도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그동안 도덕성(Morality)을 근거로 문화전쟁(Culture War)를 전개했던 미국 백인 복음주의의 위선적인 도덕적 파산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acts-of-faith/wp/2016/10/19/the-trump-effect-evangelicals-have-become-much-more-accepting-of-politicians-immoral-acts/?utm_term=.69c651ed5df4

- 4)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 5) Beilby, James K., and Paul Rhodes Eddy, eds. Understanding Spiritual Warfare: Four Views, 57. "Satan has assumed the aspects of sum total of all the individual darkness, evil, unredeemed anger, and fear of the whole race..."
- 6) Karl Barth, "Church and State" in Karl Barth, Community, State and Church: Three Essays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4), 101-148.
- 7) Dietrich Bonhoeffer, "State and Church," in Dietrich Bonhoeffer, Ethics, and Theology in Life (New York: Macmillan, 1955), pp. 297-317.
- 8) 이병주 칼럼, 「세상을 모르는 기독교, 세상을 아는 기독교 (1), 두 번째 돌판 위의 세상과 인간(총론)-기독교 신앙과 인간의 현실」, <아포리아 북리뷰>, 2016. 8. 13.
http://www.aporia.co.kr/bbs/board.php?bo_table=otiumsanctum&wr_id=130
- 9) Dietrich Bonhoeffer,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New York: Touchstone, 1997), 325-361. 디트리히 본회퍼는 또한 그의 옥중서신 중 사형이 임박한 시기에 쓴 마지막 편지들을 통해서, "근대 이후 진행된 인간의 자율성(autonomy of man)이 성년기에 이르러(come of age) 하나님에 의탁하지 않고도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을 설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시의 독일 기독교는 "세상과 인간의 공적 영역에서 퇴각하게 된 하나님의 안전한 영역을 오직 인간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종교성(Non-Christianity Religion)으로 후퇴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내면생활의 인간적 취약성이라는 최후의 안전영역에 제한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가장 강한 지점에서 세상에 맞서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Before God, with God)" "세상 속에서의 신앙(Worldliness of Christianity)"을 제안한 바 있다. 본회퍼의 이 마지막 제안은 그의 사후 '세속화 신학'이라 하여 많은 논의와 찬반의 의견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 '인간의 내면생활 영역으로 퇴각한 교회 예배의 한계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상 속에서의 신앙, 세속적 학문과 지식 영역으로의 진출'을 주창한 점에서는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에 상당한 현실적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